

# | 언어논리영역 |

응시번호
성명

문제책형
<b>신</b>



## 응시자 주의사항

1. 시험 시작 전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나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2. 답안지 책형 표기는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문제책 앞면에 인쇄된 문제책형을 확인한 후, 답안지 책형란에 해당 책형(1개)을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안을 고르며, 문제 내용에 관한 질문은 할 수 없습니다.
4.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때는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표기한 답안을 수정할 때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주어야 합니다.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불량한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5.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정답공개 및 이의제기 안내

1. 정답 및 해설은 답지 및 강의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2. 이의제기 방법 :
  - 매회 강의 종료 후 강사에게 직접 제기
  - 카카오톡 채널 "신성우의 언어논리"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이의제기 가능
3. 이의제기 결과 확인
  - 강의 및 카카오톡 오픈 채팅 등을 통해 이의제기 결과 제공



문 1.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돌싸움, 즉 석전(石戰)은 비록 지금은 행하는 지역이 없지만 190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진행한 지역이 있었던 전통 풍속 놀이다. 참여한 사람들 상당수가 부상을 입고 심한 경우 죽은 사람까지 발생하지만, 오래도록 석전이 시행되어 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나라에서 석전의 기원은 고구려 관련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오래되었다. 또 중국 역사서인 『수서(隋書) 고려전』에는 연초에 패수에 모여 왕이 관람하는 앞에서 물과 돌을 서로 뿌리면서 논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고려사』에는 고려 우왕이 석전 관람을 매우 즐겼다고 나와 있다. 『목은선생문집』과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5월 5일 단옷날에 석전을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도 있다.

석전은 단순한 놀이만은 아니었다. 투석기는 무거운 이동이 쉽지 않고, 제작비용도 많이 들며, 산성(山城) 전투나 소규모 전투에서 활용하기도 어렵다. 반면 돌을 직접 던지는 병종(兵種)을 양성한다면 이런 전투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삼국 시대 이전부터 각국은 투석을 특기로 하는 군사들을 두었다. 신라에는 투석당이 있었는데 투석당은 포차(拋車)를 운용하거나, 돌을 던지는 것을 특기로 하는 군사들을 일컫는다. 고구려, 백제에서도 투석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대를 두었다. 고려시대에는 별무반과 중앙군에 석투(石投) 부대가 포함되어 있었고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는 활쏘기·말타기와 더불어 석전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 척석군(擲石軍)이라는 부대를 만들어 훈련시켰을 뿐만 아니라 직접 이를 사열하기까지 하였다. 척석군은 세종 때에 이르러 재정비되기도 했다.

고려 우왕은 석전에 능한 자들을 직접 불러 상을 주었다. 또 조선 태종은 단옷날 석전에서 승리한 척석군에게 술과 고기를 내려 주는 한편, 면포나 저화(楮貨) 등을 상으로 주었다는 기록도 있다. 이러한 포상이 가능했던 이유는 돌을 잘 던지는 이들을 유능한 군인으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397년 7월 왜구가 쳐들어오자, 이성계는 이천우 등으로 하여금 척석군 등을 거느리고 왜구를 쫓아 잡게 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기록에서 보듯 척석군들은 1510년 삼포왜란에서 왜적을 물리치는 공을 세우기도 했다.

- ① 고구려의 투석당은 왕이 관람하는 앞에서 석전을 벌였다.
- ②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은 모두 산성 전투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들이 있었다.
- ③ 고려 우왕은 석전 관람을 즐기고 때로는 석전에 직접 참여하여 석전 결과에 따른 포상을 수여했다.
- ④ 삼포왜란에서 왜적을 물리친 군대는 면포, 저화 등의 포상을 받았을 것이다.
- ⑤ 삼포왜란의 척석군은 이천우가 거느린 척석군을 재정비한 부대일 것이다.

문 2.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회 제도가 새롭게 구성되는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회가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 개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혁 방향이다. 중국에서는 정권이 바뀌어 개혁이 일어난다고 해도 여전히 개혁의 근거를 유교 경전에 두었다. 따라서 개혁 과정에서 오래된 경전을 시대에 맞춰서 재해석하는 작업이 개혁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수적이었다.

송나라의 정치가이자 개혁자였던 왕안석은 개혁과정에서 성인(聖人)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옛 제도나 경전의 자구(字句)를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선왕, 혹은 만고불변하는 절대적 진리를 전달한 공자, 맹자 등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그러기 위한 요건으로 가장 먼저 개혁에 대한 사람들의 반발이 극심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왕안석은 마땅히 선왕의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는 ‘당법기의’의 기준을 언급하며 다시 추가 논의를 펼친다. 그는 중국 역사의 출발점으로 간주하는 ‘태고(太古)’와 경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성인의 위상을 새롭게 조망했다. 왕안석은 태고를 돌아가야 할 시간의 원형으로 보지 않고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없었던 미개한 시대로 본다. 이것은 하·은·주(夏殷周)의 세 왕조와 이전의 전설적 성왕의 시대를 잃어버린 황금시대로 보는 일반적인 유학자와 관점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는 역사를 퇴보가 아니라 발전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태고로 돌아가자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면 타인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

태고로 돌아가는 것을 퇴보라 보는 상황에서 경전과 현실의 틈새를 메우려면 ‘창조적 해석자’를 필요로 한다. 이 존재가 성인이다. 송나라 시대에 성인은 범인(凡人)과 다른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후천적 노력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롤 모델이다. 이는 배워서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성인가학론’(聖人可學論)에 바탕을 두고 있다. 왕안석도 송대의 시대 분위기를 계승하여 성인을 시대의 제도를 만드는 기획자이자 제작자로 보았다. 또한 왕안석 역시 새로운 법을 입안하여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성인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 ① 경전은 오래되었지만 진리를 담고 있다.
- ② 왕안석의 관점에서 태고는 역사의 출발점이 아닌 미개한 시대다.
- ③ 왕안석은 성인을 후천적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겼다.
- ④ 왕안석이 송나라 당시에 성인으로 여겨졌기에 그가 주장했던 개혁론에 대한 당대의 반발은 크지 않았다.
- ⑤ 성인의 능력을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사람은 없다.

문 3.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심리학자 피아제는 어린이들을 둘러앉혀 놓고 산의 모형을 각자의 방향에서 살펴보도록 한 다음 맞은편에 앉아 있는 어린이가 바라보는 산의 모양을 고르도록 하는 실험을 하였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정확한 그림을 선택하지 못했으며, 단지 자신의 위치에서 본 그림과 같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을 뿐이다. 즉 어린이들은 타자의 관점에서 보이는 사물의 모습을 추론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어린이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남들도 똑같이 경험하리라 간주하고, 자신이 갖고 싶은 장난감을 아빠도 갖고 싶어 할 것이라 생각하며 내가 배가 고프면 엄마 역시 배가 고프는 거라고 생각한다.

피아제의 실험에서 어린이들이 보인 인지 행태를 심리학에서는 ‘자기중심적 사고’라고 한다. 자기중심적 사고는 인지 오류의 한 갈래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편향을 말한다. 예컨대 독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은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자기중심적 사고에 해당한다.

자기중심적 사고는 비단 어린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어른들 역시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물을 생각한다. 이는 ‘머그컵 실험’에서도 잘 드러난다. 실험 집단을 둘로 나누어 한 집단에게는 ‘만약 당신이 이 머그컵을 산다면 얼마에 사겠는가?’라고 묻고, 다른 쪽에는 ‘만약 이 머그컵을 팔 수 있다면 최소한 얼마를 받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했다고 해보자. 놀랍게도 실험 결과 동일한 머그컵임에도 팔 때 제시한 가격이 살 때 제시한 가격보다 2배가량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할 경우 그에 대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을 ‘보유효과’(endowment effect)라 한다.

자기중심적 사고는 비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때에 따라 생존에 유리하도록 환경을 재구성하는 기능이 있다. 앞서 ‘머그컵 실험’을 생각해 보자.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없었다면 본인의 물건을 가치 이하로 남에게 넘겨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 사고가 발현된다면, 적어도 그런 일은 쉽사리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①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험할 경우 ‘보유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② ‘보유 효과’가 발생할 경우 내가 평가한 물건의 가치와 상대방이 평가한 물건의 가치가 동일해질 수 없다.
- ③ 아동기에는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욕구를 가진다.’라는 생각이 생존에 유리하다.
- ④ 실험 결과를 종합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은 후천적으로 배우는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 ⑤ 머그컵 실험에서 ‘보유효과’가 더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중심 사고가 더 강하다.

문 4.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위-진 교체시기 혜강(嵇康)은 음악과 관련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목적으로 ‘성무애락론(聲無哀樂論)’이라는 흥미로운 글을 썼다. 그는 이 글에서 진객(秦客)과 동야주인(東野主人) 간의 대화 형식을 사용하여 상이한 음악 철학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성무애락론’에서 진객은 음악이 사람에게 특정한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 기풍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유교가 등장한 이후 주류적이었던 음악관을 반영한 견해이다. 반면 동야주인은 음악이 객관적으로 듣기에 좋고 나쁜 형식을 담을 수는 있지만 특정한 정서적 반응을 유발시킬 수 없다고 본다. ‘성무애락론’은 동야주인이 진객의 음악관을 철저하게 비판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객의 입장에 따르면 음악과 마음은 공명할 수 있다. 지음(知音)의 고사를 살펴보자. 백아가 금(琴)을 연주하자 종자기는 그 연주에 완전히 공감했다. 종자기가 죽자 백아는 더 이상 자신의 연주를 알아줄 사람이 없다며 금의 줄을 끊어버렸다. 여기서 백아의 연주는 음악적 형식만이 아니라 심리적 의미를 담아냈고 종자기는 음악을 들으며 그 의미에 공명(共鳴)하였다. 즉 두 사람은 음악을 통해 정서적으로 완전한 공감을 나누고 있는 셈이다. 이를 바탕으로 진객은 좋은 음악이 사회를 선하게 계몽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한편 동야주인은 백아와 종자기의 고사를 음악과 관련된 일화를 신비스럽게 보이려고 꾸민 이야기로 본다. 아울러 그는 “지역을 달리 하면 즐거운 노래를 듣고서 사람들이 슬퍼하기도 하고 슬픈 곡소리를 듣고서 사람이 기뻐하기도 하는 관찰”을 진객의 주장에 대한 반례로 제시했다. 그리고 동야주인은 음악과 마음의 상관성보다 음악 자체가 가진 화음이나 음악적 형식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음악에서 화음이 잘 조화되면 사람이 듣기에 객관적으로 좋지만 화음이 엉망이면 사람들이 소음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었다.

- ① 동야주인과 달리 진객은 음악을 사회적 목적과 연결시킨다.
- ② 동야주인에 따르면 지역마다 음악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반응은 다를 수 없다.
- ③ 동야주인은 음악과 마음의 교류가 보편적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성무애락론은 전통적 음악관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술되었다.
- ⑤ 진객에 따르면 음악에는 특정한 메시지를 담을 수도 있고, 그것을 전달할 수도 있다.

문 5.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동양에서는 인식론을 거론할 때, 흔히 주자의 격물(格物)과 치지(致知)를 거론한다. 격물의 기본 의미는 구체적인 사물을 살펴 사물의 이치인 리(理)를 탐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치지란 나의 지식을 극한까지 연마하고 확장하여 앎의 내용에 미진한 바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주자는 격물을 통하여 마음속에 분디 있던 앎을 밝혀내면 치지에 도달한다고 보았다. 이것이 바로 유가 철학의 전통적인 격물론이다.

주자의 영향을 받은 퇴계도 기본적으로는 그의 입장을 계승했다. 당초 퇴계는 격물을 추구한 결과, 즉 사물의 이치가 전부 파악된 경지를 뜻하는 물격(物格)을 ‘물에 격한’ 것으로 보았다. 이는 물을 인식 대상으로 보고 인식 주체인 사람의 마음이 대상에 이른다는 의미이다. 그는 이런 관점이 주자의 생각에 부합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만년에는 물격에 대한 해석을 ‘물이 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즉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면 사물에 내재한 리가 마음에 이른다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일방적으로 사물에 내재한 리에 다가가서 리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면 사물의 리가 사람의 마음에 다가온다는 의미이다. 이를 퇴계는 리가 마음에 직접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탐구하는 것에 따라 이른다고 해석했다. 이렇게 본 까닭은 만약 리가 리의 자발성만으로 마음에 이른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사람들은 마치 리가 물리적인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인식 과정에서 인식 대상인 리의 능동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인식 주체로서의 마음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이른바 ‘리자도(理自到)’이다.

퇴계가 리의 능동성을 무한정 허용한 것은 아니다. 리의 작용은 인식 과정에 참여하는 리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식 주체가 대상을 향해 인식 작용을 수행할 때, 인식 대상 역시 인식 주체를 향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는 맥락에 한정된다는 뜻이다. 퇴계는 인식 과정에서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모두에 ‘작용’이라는 유사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주자의 격물론을 자기 나름의 견해로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 ① 주자와 마찬가지로 퇴계 역시 리가 마음에 직접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② 퇴계에 의하면 깨달음을 통해 인식한 적이 없는 사물에 대한 리를 얻을 수 있다.
- ③ 퇴계가 만년에 수정한 격물에 대한 주장은 주자의 견해와 양립할 수 없다.
- ④ 퇴계는 물격을 사람의 마음이 사물에 이르러 리를 배우게 된다고 보는 것이 주자의 생각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⑤ 퇴계는 초기에는 리의 작용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만년에는 리가 자발성을 가지고 작용한다고 보았다.

문 6.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근본적 규범으로, 국가 구성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합의이자 국가를 구성하는 최상위 법규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는 법적 안정성이 중시된다. 그러나 변화하는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대응하여 규범력을 유지하거나, 질서 정연하고도 집약적으로 헌법을 구성하기 위해 헌법이 개정되기도 한다. 헌법의 개정이란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라 헌법의 특정 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추가함으로써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기존의 헌법의 토대가 되어 있는 헌법 제정 권력까지 배제하는 헌법의 파기와는 다르다.

헌법 개정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는 학자들간 이견이 없다. 다만, 헌법의 개정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입장이 다른데, 이는 대체로 개정 무한계설과 개정 한계설로 나뉜다. 개정 무한계설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를 밟으면 어떠한 조항이나 사항이더라도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 무한계설에서는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 사이의 틈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 개정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헌법 최고의 법적 권력은 헌법 개정 권력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현재의 헌법 규범이나 가치에 의해 장래의 세대를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밝힌다. 그러나 개정 무한계설은 법 규범이 가지는 실질적인 규범력의 차이는 외면한 채 헌법 개정에 있어서 형식적 합법성만을 절대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개정 한계설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를 따를지라도 특정한 조항이나 사항은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 한계설에서는 헌법 제정 권력과 헌법 개정 권력을 다른 것으로 구별하여 헌법 개정 권력은 헌법 제정 권력의 소재(所在)를 변경하거나 헌법 제정 당시의 국민적 합의인 헌법의 기본적 가치 질서를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헌법 제정자가 내린 근본적 결단으로서의 헌법은 개정 대상이 될 수 없고 헌법 위에 존재하는 자연법의 원리에 어긋나는 헌법 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헌법의 국민 주권 원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장은 헌법 개정 절차에 의해서도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① 개정 한계설은 개정 무한계설과 달리 헌법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 ② 개정 무한계설에 따르면 헌법 제정 당시 뿐만 아니라 개정 시의 국민적 합의 역시 변경할 수 없는 기본적 가치가 된다.
- ③ 개정 한계설에 따르면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 사이의 틈은 헌법 개정이 아니라 해석을 통하여 해소해야 한다.
- ④ 개정 한계설은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만 개정 무한계설은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 ⑤ 개정 무한계설과 개정 한계설 모두 헌법 개정에 있어서 헌법제정권력을 배제하지 않는다.

문 7. 다음 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곳을 ㉠ ~ ㉥에서 찾아 수정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소리의 공명성은 소리가 멀리까지 울리는 성질을 의미한다. 동일한 길이, 강세, 높이로 소리를 낼 경우 공명성이 큰 말소리는 그렇지 않은 말소리보다 더 멀리까지 정확하게 들린다. 입이나 코 또는 성문(聲門)이 더 많이 열리면서 소리를 동반하는 공기의 흐름이 방해될 때이기 때문이다.

음운 중에는 모음이 자음에 비해 공명성이 훨씬 크다. 자음 중에는 혀 주변이나 코로 공기가 흐르며 소리가 나는 유음(ㄹ)이 가장 공명성이 크고 그 다음으로 비음(ㅁ, ㄴ, ㅇ)이 공명성이 크다. 혀, 치아, 입술 등에 의해 공기가 막혔다 터지거나 좁은 곳을 흐르는 마찰음(ㅅ), 파찰음(ㅈ), 파열음(ㅂ, ㄷ, ㄱ)은 공명성이 작다. 공명성의 크기를 측정해 공명도를 나타낼 수 있는데, 비음부터는 공명음, 나머지는 장애음이라고 한다. ㉠ 우리 말 음절은 기본적으로 음운들이 결합해 이뤄지기 때문에 음절 내에서 공명도 변화가 나타난다. 음운들이 각각의 공명도를 지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먹’은 세 개의 음운, 즉 초성에 비음 ‘ㅁ’, 중성에 모음 ‘ㅊ’, 종성에 파열음 ‘ㄱ’ 이 모여 음절을 이루므로 음절 내에서 공명도 변화가 ‘물’보다 ㉡ 상대적으로 작다.

그런데 ‘먹’과 ‘물’ 두 음절이 이어지면, 자음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 결과 선행 음절 종성에 있는 파열음 ‘ㄱ’이 비음 ‘ㅇ’으로 변해 [명물]로 발음된다. ㉢ 이는 선행 음절 종성의 공명도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절과 음절이 만날 때에는 발음의 편의를 위해 특정 음운이 변동되면서 음절 간의 공명도 차이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 ‘먹물’처럼 장애음과 비음이 음절 경계에서 만나 선행 음운의 공명도가 후행 음운보다 낮은 경우에는, 후행 음운이 선행 음운보다 높은 공명도로 시작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때 ㉤ 선행 음운인 장애음이 비음으로 바뀌면 선행 음운의 공명도가 높아지면서 음절 간 공명도 차이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① ㉠을 “음운들이 결합하여 음절이 되기 때문에, 음절의 공명과 음운의 공명도와 같다.”로 고친다.
- ② ㉡을 “상대적으로 크다.”로 고친다.
- ③ ㉢을 “선행 음절 종성의 공명도를 기준으로 단어의 공명도가 평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로 고친다.
- ④ ㉣을 “‘먹물’처럼 장애음과 비음이 음절 경계에서 만나 후행 음운의 공명도가 선행 음운의 공명도보다 낮지 않은 경우”로 고친다.
- ⑤ ㉤을 “선행 음운인 장애음이 비음으로 바뀌면 선행 음운의 공명도가 높아지면서 후행 음운의 공명도는 낮아질 수”로 고친다.

문 8. 다음 글의 ㉠과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지방’은 몸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다. 지방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는데, 근육을 이루는 주요 구성물질인 단백질은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1g당 4kcal의 열량을 내는 데 비해 지방은 수분이 거의 없어 9kcal의 열량을 낸다. ‘체지방’은 섭취한 영양분 중 쓰고 남은 영양분을 지방의 형태로 몸 안에 축적해 놓은 것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체지방은 지방 조직을 이루는 지방 세포에 축적되며, 피부 밑에 위치하는 피하지방과 내장 기관 주위에 위치하는 내장지방으로 나뉜다. 이 체지방은 내장 보호와 체온 조절 기능을 할 뿐 아니라 필요시 분해되어 에너지를 만들기도 한다.

비만의 판정과 관련하여 흔히 쓰이는 ‘체질량지수(BMI)’는 신장과 체중을 이용한 여러 체격지수 중에서 체지방과 가장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BMI는 체중(kg)을 신장의 제곱(m<sup>2</sup>)으로 나누어 구하는데, 18.5~22.9이면 정상 체중, 23 이상이면 과체중, 25이상이면 경도 비만, 30이상이면 고도 비만으로 판정한다. 그러나 운동선수처럼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체지방량이 적어도 상대적으로 BMI가 높을 수 있다. 따라서 BMI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체지방 측정 방법이 요구된다.

‘생체 전기저항 분석법(BIA)’은 체내에 미약한 전류를 흘려보내 전기저항을 알아봄으로써 체지방량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전류가 흘러갈 때 이를 방해하는 힘을 저항 또는 전기저항이라고 한다. 인체 내의 수분은 전기가 잘 통하므로 전기저항이 매우 작다.

㉠. 전류가 신체를 통과해서 나온 값이 처음 흘려보낸 값에서 얼마나 손실되었는지 확인하면 신체의 전기저항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성질을 이용하면 체지방량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격렬한 운동을 일시적으로 하거나 음료를 섭취할 경우 ㉡ 체지방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체지방 측정기를 사용할 때에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조건에서 측정해야 한다.

- ① ㉠: 근육이 많은 곳에서는 전기저항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나 지방이 많은 곳에서는 전기저항이 크게 나타난다  
㉡: 전기저항 수치를 높여
- ② ㉠: 근육이 많은 곳에서는 전기저항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나 지방이 많은 곳에서는 전기저항이 크게 나타난다  
㉡: 전기저항 수치를 낮추어
- ③ ㉠: 근육이 많은 곳에서는 전기저항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나 지방이 많은 곳에서는 전기저항이 크게 나타난다  
㉡: 전기저항 수치를 변경하여
- ④ ㉠: 근육이 많은 곳에서는 전기저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나 지방이 많은 곳에서는 전기저항이 작게 나타난다  
㉡: 전기저항 수치를 높여
- ⑤ ㉠: 근육이 많은 곳에서는 전기저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나 지방이 많은 곳에서는 전기저항이 작게 나타난다  
㉡: 전기저항 수치를 낮추어

문 9.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997년 한국에서는 통칭 ‘IMF 외환위기’라고 불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한국에서는 외환위기와 외채위기가 동시에 발생했다. 외환위기관 일국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환율이 급등하는 경우로,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 부족, 전쟁, 과도한 물가상승 등으로 발생한다. 한편 외채 위기는 어떤 국가가 외국으로부터 요구된 자금 지급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 즉 디폴트(default)를 선언할 위기에 놓이는 것을 지칭한다.

한국의 IMF 외환위기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은 동아시아 경제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IMF 이전까지 한국 정부는 대기업 채무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급 보증을 하는 대신 경영에 개입하는 ‘관치금융’을 하였다. 그 결과 금융기관도, 기업도 사업 위험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 명목 수익률만 추구한 결과 기업은 부실화되었다. 그 후 외형적으로만 성장한 기업이 위기를 겪게 되자 정부가 화폐 발행을 통한 자금지원에 나서 물가가 상승하고 통화 가치가 떨어졌고, 이는 외국 투자자들의 자본 철수를 초래하였으나 지급할 외환이 없어 IMF 외환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반면 삭스는 현대화된 금융공황 모형을 통해 외환위기의 원인은 동아시아 경제 밖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은행이 전체 예금보다 적은 금액만 준비금(Reserve)으로 은행에 쌓아 놓는 부분준비금 제도에서는 경제적 기초가 건실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들의 예상에 따라 공황이 일어나는 자기실현적 위기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삭스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들이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높은 수익률을 보고 투자했다가 일시적인 위기가 왔을 때 더 큰 손실을 피하고자 한 결과 자기 실현적으로 IMF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공포심리로 준비금보다 더 큰 외화 자금을 회수하려 한 것이 당시 위기의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한편 비주류경제학 측에서는 IMF 외환위기는 과잉 자본 축적으로 인한 위기라 본다. 이 견해에 따르면 한국은 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 정책을 거쳐 20년간 차입을 통한 과잉자본 상태를 유지하여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기업의 이윤은 그에 걸맞게 상승하지 못했다. 이로 인하여 기업들은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그 중 외국 투자자에 대한 상환 실패가 외채위기와 외환위기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 ① IMF 사태 당시 일부 채권국은 한국의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
- ② 크루그먼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급 보증 정책은 필연적으로 외환위기를 초래한다.
- ③ 크루그먼과 삭스는 IMF 당시 외환위기와 외채위기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
- ④ 삭스에 따르면, 부분 준비금 제도하에서 외환위기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에 준비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을 완화시킬 수 없다.
- ⑤ 비주류경제학은 자본 축적은 외채 위기로 귀결된다고 생각한다.

문 10.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기독교가 종교적으로 로마 제국과 유럽을 지배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독교회를 누가 영도하는가가 매우 중요해졌다. 교회의 중심으로서 교회와 수많은 목자를 영도할 권한, 즉 수위권(首位權)을 가질만한 자격이 있는 자로 제국의 첫 번째 수도였던 로마의 대주교(Archbishop)인 교황(Pope)과 그 이후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총대주교(Patriarch)가 추려졌다.

한 로마의 신학자는 확실한 근거를 통해 교황의 수위권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이렇다. ㉠초대 로마의 대주교는 성 베드로이다. 그리고 ㉡성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성스럽고 으뜸된 제자로서 첫 번째 사도(Apostles)이다. 그는 이런 사실로부터 ㉢베드로의 역할을 이어받은 로마의 대주교, 즉 교황은 다른 어떤 도시의 주교(Bishop)들보다 특별하다는 것을 이끌어낸다. ㉣초대 대주교가 첫 번째 사도였던 도시의 대주교는 그리스도가 초대 주교가 아닌 다른 도시의 주교들보다 특별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하지만 교황이 다른 도시의 주교보다 특별하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제국의 수도인 교구를 총괄하기 때문에 다른 도시의 주교들보다 특별한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를 제치고 교황이 교회의 중심이라는 것이 도출되는 않는다. 그래서 그 신학자는 ㉥교황은 로마 그 자체라는 것, 그리고 ㉦만약 로마가 콘스탄티노폴리스보다 우위에 있고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제국의 수도라면, 로마는 교회의 중심이라는 것으로부터 교황의 수위권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보 기>

- ㉧. 그리스도가 그 어떤 도시의 주교도 맡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전제되면 ㉠, ㉡, ㉢으로부터 ㉣이 도출된다.
- ㉨. 가톨릭 교리에 따라 총대주교는 다른 도시의 주교들과 동격이라는 것이 전제되면 ㉢으로부터 ㉣이 도출된다.
- ㉩. 교회의 중심인 도시만이 제국의 수도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 전제되면 ㉥과 ㉦으로부터 ㉣이 도출된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문 11.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군 당국은 간부 8명 중 일부를 팀으로 구성해 프로젝트 A를 실행하려 한다. 군 당국은 간부 8명 중 스파이(Spy)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스파이가 아닌 자가 4명 이상일 때에만 그들 중 3명을 팀으로 구성해 프로젝트 A를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조사 결과 간부 A, B, C, D, E, F, G, H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 A는 스파이가 아니다.
- B가 스파이라면 G는 스파이가 아니다.
- E가 스파이가 아니라면 A는 스파이다.
- C나 H가 스파이가 아니면 F는 스파이가 아니다.
- D나 F가 스파이면 A나 C 중 적어도 한 명은 스파이다.
- G가 스파이가 아니면 A는 스파이다.

—<보 기>—

ㄱ. 스파이는 최대 5명이다.  
 ㄴ. D와 F 중 적어도 한 명이 스파이가 아닌 경우에만, 프로젝트 A는 실행될 수 있다.  
 ㄷ. 프로젝트 A가 실행되었다면, A와 B 중 적어도 한명은 프로젝트 A에 참여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문 12.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X과에서는 신입 주무관 갑, 을, 병, 정, 무를 사무관 A, B, C, D와 연결 지어 4개의 팀을 만들고자 한다. 사무관은 각각 팀장 역할을 하며, 주무관은 팀원이 된다. 알려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 세 명 이상의 팀원이 배치되는 사무관은 없고 두 사무관에게 동시에 배치되는 주무관도 없다. 또한 주무관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
- 갑이 A 사무관에게 배치되면, 병은 C 사무관에게 배치되지 않는다.
- 갑은 B 사무관에게 배치되지 않는다.
- 을과 무는 같은 사무관에게 배치된다.
- 병이 C 사무관에게 배치되면, 정은 D 사무관에게 배치된다.
- C 사무관에게는 두 명의 주무관이 배치된다.

- ① 갑이 C 사무관에게 배치되면, 병은 A 사무관에게 배치된다.
- ② 을이 B 사무관에게 배치되지 않으면, 정은 D 사무관에게 배치된다.
- ③ 병이 C 사무관에게 배치되면, 갑은 C 사무관에게 배치된다.
- ④ 정이 D 사무관에게 배치되면, 갑은 A 사무관에게 배치된다.
- ⑤ 정이 D 사무관에게 배치되지 않으면, 무는 C 사무관에게 배치된다.



문 13. 다음 글의 ㉠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추가해야 할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정 대학교 학생은 매 학기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제정학, 정치학 다섯 과목에 대한 시험을 친다. 이 중 정해진 두 과목에서 A 학점을 받으면 성적 장학금 수혜자가 된다. 정해진 두 과목 중 한 과목에서만 A 학점을 받았다면 생활 장학금 수혜자가 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아무 장학금도 받지 못한다. 다만, 두 장학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이 학교 학생 갑은 행정법과 행정학에서 B 학점을 받았고 경제학에서는 A 학점을 받았는데, 생활 장학금의 수혜자가 아니었다. 한편 을은 경제학에서 D 학점을 받았고 나머지 네 영역에서 A 학점을 받았는데 성적 장학금의 수혜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행정법과 행정학에서만 A 학점을 받은 우정대학교 학생은 성적 장학금과 생활 장학금 중 어느 쪽 수혜자도 되지 못한다. ㉠ 또한 정치학에서 A 이상의 학점을 받지 못한 우정 대학교 학생은 성적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

- ① 우정 대학교 학생 중 재정학에서 A 학점을 받은 학생은 모두 경제학에서도 A 학점을 받지 못했다.
- ② 우정 대학교 학생 중 행정법에서 A 학점을 받지 못한 학생은 모두 생활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 ③ 우정 대학교 학생들은 성적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이라도 모두 적어도 한 과목에서는 A 학점을 받았다.
- ④ 우정 대학교 학생 병은 행정법, 행정학에서 A 학점을 받았으나 아무 장학금도 받지 못하였다.
- ⑤ 우정 대학교 학생 병은 경제학과 정치학에서 A 학점을 받았는데 생활 장학금의 수혜자이다.

문 14.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영국 최대 통신사인 브리티시텔레콤(BT)의 2004년 재무제표를 접한 일반 투자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회사가 갑자기 11억 파운드에 달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이다.

적자 때문에 기업이 원래 갖고 있던 자기자본이 줄어드는 현상을 자본잠식이라고 한다. 즉, 자본잠식은 자기자본이 깎여나간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은 무엇일까? 회계상 자기자본 항목은 크게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성된다. 자본금은 해당 기업 주식의 총 가치, 즉 발행 주식수와 주식의 액면가를 곱해서 계산되며 주식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의미한다. 잉여금은 주식발행 초과금이나 유보금과 같이 회사 내부에 쌓인 돈을 말한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란, 주식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가 액면가보다 높을 때 새로 주식을 발행해 발행가와 액면가의 차액만큼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말하고, 유보금은 회사가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 즉 영업이익 중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뒤 남은 돈을 말한다. 회사의 적자폭이 커져 잉여금이 바닥나고, 회사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기자본이 자본금보다도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을 ‘부분 자본잠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회사 적자가 계속되다 보면 결국 자본은 소멸되고 자기자본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를 ‘자본 전액잠식’ 또는 ‘완전 자본잠식’이라 부른다.

그러나 잉여금을 누적 계산하여 어떤 시점의 자기자본을 구하는 것은 어렵다. 통상적으로 자기자본은 어떤 시점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적 자산의 총 가치인 총자본에서 채권 등을 통해 조달한 금액, 즉 부채를 뺀 값으로 구해진다. BT가 자본잠식에 놓인 것도 부채에 대한 산정 방식이 달라져서였다. 새로운 국제 회계기준인 IFRS에서는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부채를 모두 현재의 부채로 잡도록 규정하고 있다. BT의 경우 직원들의 미래 퇴직금이 전부 현재의 부채로 잡히면서 자본잠식에 놓였다.

자본금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1에서 뺀 값을 자본잠식률이라 한다.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일 경우 관리종목 편입사유가 되며, 자본잠식률이 2년 연속 50% 이상일 때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일 경우에는 퇴출 처리된다.

- ① 기업이 적자를 볼 경우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다.
- ② 회사 영업이익에서 주식배당금을 제외한 부분은 자본금의 일부다.
- ③ 5,000만 원의 자본금으로 증시에 상장된 기업은 적자금액이 누적 5,000만 원이 되면 우리 증시에서 퇴출 처리된다.
- ④ 자기자본이 8억 원인 여행사가 Covid-19 방역정책 때문에 2억 원의 손실을 본 경우, 자본잠식률은 25%가 된다.
- ⑤ 주식으로 조달한 자금은 자기자본이 되나,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은 자기자본이 아니다.

문 15.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통상적으로 죽음이란 신체의 모든 장기 활동이 정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는 이런 상태, 즉 비록 유기물은 남아있지만 생체 기능이 완전히 정지한 상태의 느낌을 정확히 알기 위하여 선사 시대부터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러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의 증언은 확보할 수 없기에, 죽음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류는 일시적인 심장마비를 겪거나 강한 쇼크를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증언을 수집하고 전승해 왔고, 이를 토대로 저승사자, 천사, 지옥 등의 사후세계를 묘사했다.

이런 연구는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A 연구팀은 심장마비 환자 중 심폐소생술로 살아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사체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질문을 받은 63명 중 7명이 입사체험이 기억난다고 응답했으며, 공통적으로 ‘긴 터널을 지나 죽은 지인들의 영혼이 모인 곳에 갔다.’고 응답했다. B의 연구에 의하면 입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은 ‘신’과 같이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실 심장이 멈춘다 해도 뇌는 남아 있던 산소와 영양분으로 6분 동안 인지나 감각 등 기능을 유지한다. B의 같은 연구에 의하면 입사체험 경험자의 상당수가 입사체험 전까지 주변 상황의 청각 자극, 즉 응급실의 긴급한 소리를 들었다고 응답했으며 그 소리들은 실제 발생한 소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입사체험은 주로 어느 순간에 일어날까? C 연구팀은 심장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뇌를 관찰하고 그 후 살아난 사람들과 인터뷰한 결과, 심장이 멈추기 전 30초에서 멈춘 후 30초까지 기억회로가 급격히 활성화되었고 그때가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게 되는, 이른바 ‘주마등’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동일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C는 입사 체험자들의 경험은 뇌 내 활동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를 이끌어냈다.

—<보 기>—

ㄱ. A, B, C의 연구 결과가 동시에 참일 수 있다.  
 ㄴ. B와 C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죽음에 대한 주관적 느낌은 뇌의 작용 결과물이다.  
 ㄷ. C의 연구에 따르면 A가 목격한 ‘죽은 지인들의 영혼’은 자신의 과거 기억의 재현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문 16. 다음 대화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A: 스승님, 영웅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쭙습니다. 영웅이라면 모두 천하의 혼란을 극복하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B: 그러하다. 영웅이라면 모름지기 안으로는 반적(叛賊)을 처단하고, 밖으로는 용적만이(戎狄蠻夷)를 막는, 천하의 혼란을 극복하는 일에 힘을 쓴다.  
 A: 그렇다면 스승님, 삼보의 난을 진압한 위 무제나 요동 지역의 준동을 막아낸 사마선왕은 모두 천하의 혼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한 것입니까?  
 B: 역사적 선례를 적절하게 인용하는 것을 보니 십팔사략(十八史略)을 열심히 공부했나 보구나. 너의 말이 옳다.  
 A: 그런데 스승님, 그들이 천하의 혼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B: 두 사람 모두 뛰어난 군재를 지녔다. 위 무제는 <손자병법>에 주석을 달았고, 사마선왕은 육도삼략을 통달했다. 이러한 성과를 보인 이들에게 어찌 군재가 없다 하겠는가? 고금을 통틀어, 군재가 뛰어난 자는 모두 천하의 혼란을 극복하는데 기여하였다.  
 A: 그러면 군재 따위는 찾아 볼 수 없는 백면서생(白面書生)이지만 천하의 혼란을 극복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B: 그런 인물도 물론 있다. 당 태종에게 조언을 아까지 않으며 올바른 통치를 하도록 도운 위징이 그러하다.  
 A: 그런 사람도 영웅인지에 대해 궁금하였습니다.  
 B: 그렇지는 않다. 그런 사람을 영웅이라 부르면 영웅의 의미가 쇠퇴하게 된다. 그는 그저 영웅의 도구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A: 스승님, 스승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  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 기>—

ㄱ. 만약 B가 마지막 진술만 반복하여 ‘천하의 혼란을 극복하는데 기여했다면 모두 영웅이다.’라고 인정한다면, 하후무(夏侯楙)가 육도삼략에 통달했다는 추가 정보가 주어지면 B는 그를 영웅이라고 여길 것이다.  
 ㄴ. “군재가 뛰어난 사람은 모두 영웅이다.”라는 진술은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ㄷ. <손자병법>의 또 다른 주석서를 저술한 가후(賈誼)라는 인물이 평생 반적 이각에게 협력하며 살았다면 B의 주장은 약화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문 17. 다음 글의 갑~병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음 삼단논법을 보자.

논증 (1) 어떤 과학자는 철학자이다.  
어떤 철학자는 수학자이다.  
따라서 어떤 과학자는 수학자이다.

논증 (1)은 부당한 삼단논법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를 타당한 논증이라고 잘못 판단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지 실험 연구자 셋은 오류의 원인과 관련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갑: 사람들은 두 전제가 모두 긍정문이면 긍정 결론만을, 하나라도 부정문이면 부정 결론만을 참이라 받아들인다. 동시에 두 전제가 모두 ‘모든 A는 B이다’라는 의미를 지닌 명제로 이루어진 것일 경우에는 전칭 결론만을 참이라 받아들이며, 하나라도 ‘어떤 A는 B이다’의 의미를 지닌 명제일 경우 ‘어떤 A는 B이다’ 형태의 결론만을 참이라 받아들인다.

을: 사람들은 삼단논법의 전제를 만족시키는 임의의 모형을 만든 후 그 모형과 결론의 내용이 부합하면 결론을 참이라, 모형과 결론의 내용에 모순이 있으면 결론을 거짓이라 판단한다. 전제로부터 결론이 도출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제를 만족시키는 모든 모형을 구성해보아야 하나, 이러한 모형 구성에 실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결론을 참이라 판단하게 된다.

병: 사람들은 명제의 주어와 술어의 위치를 임의로 바꾸는 오류를 범한다. 즉, ‘모든 A는 B이다(혹은 아니다).’ 혹은 ‘어떤 A는 B이다(혹은 아니다).’라는 의미를 지닌 표준적인 명제 형태에서 A와 B의 위치를 임의로 바꾸어도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결과 부당한 논증을 타당한 논증이라 판단하게 된다.

<보 기>

ㄱ. “어떤 철학자도 과학자가 아니다. 어떤 과학자는 지리학자이다.”라는 전제로부터 “어떤 지리학자는 과학자이다.”를 타당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라고 응답했다는 심리 실험 결과는 갑에 의해서는 설명될 수 없으나 병에 의해서는 설명되는 내용이다.

ㄴ. “모든 적색 블록은 구멍이 난 블록이다. 모든 둥근 블록은 적색 블록이다.”라는 전제로부터 “어떤 둥근 블록은 구멍이 나지 않은 블록이다.”를 타당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라고 응답했다는 심리 실험 결과는 을에 의해 설명된다.

ㄷ. 대다수의 사람이 논증 (1)과 “물리학자가 아닌 모든 학자는 과학자가 아니다. 어떤 과학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다. 따라서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물리학자이다.”라는 논증을 모두 타당한 논증으로 판단했다는 심리 실험 결과는 갑, 을, 병 중 병에 의해서만 설명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문 18. 다음 글의 ㉠과 ㉡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집값 문제는 저출산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주거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출산율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집값이 너무 높을 경우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게 되어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 저출산은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것”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도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는 것이 이런 주장의 근거이다.

전통적 연구에 의하면 전월세로 생활하는 가구보다 집을 소유한 가구에서 출산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첫째 아이를 출산한 시기는 집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보다 집을 소유한 가구가 늦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패널자료를 이용한 신혼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와 출산 관계 연구에 따르면, 자가 소유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는 출산 시기를 늦추고 그 대신 일하는 시간을 늘려서 주택 구입 비용을 확보한다. 이후 집을 구매하고 나면, 출산을 하게 되는데 이는 집값이 오를 때 출산률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현실과의 정합성도 높다.

자산 가격 상승 시기에는 자산 형성 욕구가 커져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도 발견되었다. 이는 부모들이 향후 자식이 가져다 줄 이익과 아이를 낳지 않고 그 양육비를 자산에 투자했을 때의 기대 수익을 비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관점에서 자식을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연구 진행자의 말에 의하면 이런 상관관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포함한 각종 연구 결과들이 대립한 결과,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에 ㉠ 양질의 주택 분양 우선권을 아이가 없는 무주택 신혼부부 중 자가 소유를 계획하는 가정에게 우선 공급해야만 출산율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 둘째 아이를 준비하는 무주택 부부에게 우선 공급해야만 출산율이 증가한다는 반론에 부딪히게 되었다. 주택 분양 우선권이 있으면 집을 빠르게 장만할 수 있다.

<보 기>

ㄱ. 노후 부양을 자식에게 기대는 부모가 줄어들고 있다면 ㉠과 ㉡은 모두 강화된다.

ㄴ. 모든 무주택 가구는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 자녀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은 강화된다.

ㄷ. 첫째 아이를 낳는 시기가 앞당겨지면 최종적으로 출산하게 되는 아이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면 ㉠은 약화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 19. ~ 문 20.]

논리학의 관심은 인간의 추론 능력에 있다. 추론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사실들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사실을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 추론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며,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추론뿐만 아니라 판단과 같은 다른 종류의 사고 작용도 어렵다.

논리학에서 말하는 언어적 표현의 기본 단위를 ‘명제’라고 부른다. 명제는 참 거짓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완결성을 갖춘 것이다. 명제는 문법적 제약을 받으나 그 언어가 반드시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자연 언어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원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언어라면 수식이나 코드(code)와 같은 인공 언어라도 상관없다. 자연 언어와 달리, 인공 언어는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기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공 언어는 자연 언어보다 사실들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연 언어만큼 다양하고 풍부한 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똑같은 하나의 사실을 진술하지만 한다면 표현과 무관히 동일한 명제로 보아야 한다. 이때 한 명제가 지닌 참과 거짓의 속성을 진릿값이라고 한다. 진술이 사실과 부합되면 참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거짓이 된다. 논리학에서는 진위여부를 결정할 때 사실과의 부합 여부를 물어보지 않는 언어나 수학, 혹은 논리 세계에 관한 명제를 다루기도 한다. ‘아버지는 남자이다.’와 같은 명제는 그것의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 사실 여부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 ‘남자’라는 말의 뜻이 ‘아버지’라는 말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명제를 이루는 개념 간의 관계에 의해 진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위가 판단되는 명제를 ‘분석 명제’라고 한다. 분석 명제가 아니면서, 사실과의 부합 여부에 의존하지 않고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명제도 있다. ‘지금 이곳은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는 어떤 경우에도 참이 된다.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서술어로 구성된 ‘단순 명제’가 둘 이상 결합한 명제를 ‘합성 명제’라 하는데, 합성 명제도 그것의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 사실 여부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한편 다른 명제와의 관계에서 특정 명제의 진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아니다.’라는 명제를 생각해보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아니었던 사람들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없는지를 알아본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다.’라는 긍정 명제의 진위를 가려내어 그것이 참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아니다.’라는 그 부정 명제는 거짓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은 명제와 그 부정 명제는 동시에 참이거나 동시에 거짓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논리학에서는 모든 명제는 참과 거짓 중 하나의 진릿값만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이를 배중률이라고 한다. 배중률까지 고려한다면 다른 명제와의 관계에서 진위가 결정되는 명제는 더 많아진다.

한 명제의 진릿값이 다른 명제와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또 다른 예로 논리적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명제 A가 참일 때 반드시 참이 되는 명제 B가 있을 때 우리는 ‘명제 A가 명제 B를 함축한다’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모두 20세 이상이다.’라는 명제는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모두 15세 이상이다.’라는 명제를 논리적으로 함축한다.

문 19.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 ① ‘a가 c의 아들이다’라는 명제가 참이고 ‘b도 c의 아들이다’라는 명제도 참이라면 ‘b와 c는 형제다’라는 명제는 분석 명제이다.
- ② 명제 A가 명제 B를 함축한다면 A가 참이 아니라면 B 역시 참이 아니다.
- ③ 어떤 명제가 합성 명제라면 사실과의 부합 여부와 무관하게 명제의 진위가 결정된다.
- ④ 인공 언어를 사용하면 문법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명제 A의 부정 명제가 참일 수 없다면, 명제 A는 참이다.

문 20.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A : 총각은 결혼한 성인 남자이다.  
 B :  $38 = 21 + 17$   
 C :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아니다.

- ① ‘총각이 아닌 결혼한 성인 남자는 없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A는 참이 된다.
- ② B는 인공 언어로 표현된 분석 명제이고 진위 값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 ③ C의 진위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스승이다’라는 명제의 진위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다.
- ④ A는 C보다 사실들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 ⑤ A와 C는 사실과의 부합 여부가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

문 21.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려 충렬왕은 선대 왕들과 달리 적극적으로 몽골의 질서에 편입되려 했다. 그는 세자 때부터 몽골 지배계층에 직접 편입되기를 원했고 그 전략으로 양국 왕실 간 혼인 관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스스로 몽골 제국 황제의 사위 즉 부마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몽골의 군사 활동에 적극 협력하는 태도를 보였다. 즉위 후 충렬왕은 한 차례 실패한 일본 정벌에 대해 “원컨대 다시 배를 만들고 군량을 비축하여 토벌에 나선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라고 몽골 제국의 당시 황제인 쿠빌라이에게 말하였는데,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는 과거 몽골이 남송·일본정벌을 준비할 때 원종이 병력지원 책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쿠빌라이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을 받은 사실과 매우 대조적이다.

머리모양 및 복색에서 몽골인의 외양을 모방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는 세자 시절 몽골 옷차림에 변발까지 했을 뿐 아니라 즉위 직후 국경지대에서 부인인 몽골 공주를 맞을 때 변발을 하지 않은 신료들을 질책했다. 공주와 함께 도성에 들어올 때에도 고려 예복을 입으라는 신료들의 건의를 물리치고 몽골식 복장을 착용한 채 입성하고, 심지어 신료들의 영접을 받을 때 고려옷 입은 자들을 몽둥이로 때려 몰아내기도 했다. 아울러 1278년에는 전국에 몽골식 의관을 착용하라는 명을 내렸는데 이 역시 과거 원종이 몽골식으로 복색을 바꾸라는 건의에도 “나는 차마 하루아침에 조상의 가풍을 갑자기 바꿀 수 없으니 내가 죽은 후 경들 마음대로 하라”라면서 거절한 것과 상반된다.

그가 고려의 복색을 일체 몽골식으로 바꾸려 한 시도는 몽골의 요구와 무관하게 오로지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다. 오히려 당시 몽골은 복속민에게 고유의 풍속을 유지하게 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었다. 1260년 화친 수립 직후 쿠빌라이는 고려에 조서를 보내 의관을 바꾸지 않고 본속(本俗)에 맞게 해달라는 원종의 요청을 수락했고, 동 시기 중국 안남 지방에 보낸 조서에서는 의관·관례·풍속을 유지하라고 명하였기에 자발적으로 의관을 바꾼 행위는 몽골에도 매우 뜻밖의 일로 비쳤다. 이 같은 자세는 부마국으로서의 위상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고, 이를 토대로 고려에 대한 몽골의 통제를 완화시킬 수 있었다.

- ① 충렬왕은 두 차례 일본 정벌에 군사를 보냈다.
- ② 충렬왕은 몽골의 통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몽골 양식을 받아들였다.
- ③ 충렬왕은 몽골의 질서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 ④ 고려와 달리 중국 안남 지방은 몽골에 지배당한 후에도 일정 기간 고유 복색을 유지했다.
- ⑤ 원종 시기 고려 조정에서는 복색과 관련하여 고려 전통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몽골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문 22.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서울 도심에 놓여 있는 국보 ‘천상열차분야지도각석’은 조선 태조 4년(1395)에 별자리의 이동을 돌에 새긴 비석이다. 이 비석은 고구려 시기 평양의 비석에 새겨진 천문도를 참고하여 만들어졌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천(全天) 천문도 가운데 하나로써 우리 역사의 대표적인 유산이며, 세계적인 보물이다.

‘천상열차분야지도’란 하늘의 모습을 ‘차’와 ‘분야’에 따라 별렬농은(列) 그림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차’란 목성의 운행을 기준으로 설정한 적도대(帶, band)의 열두 구역을 말하고, ‘분야’란 하늘의 별자리 구역을 열둘로 나눠 지상의 해당 지역과 대응시킨 것을 뜻한다. 비석에 그려진 지도의 가운데 부분에는 큰 원이 있고 그 안에 작은 원, 그리고 그 사이에 적도와 황도가 그려져 있다. 큰 원을 고대로부터 내려온 별자리 체계인 28수(二十八宿)에 따라 구역을 바퀴살 형태로 나눈 다음, 북극을 중심으로 1,467개의 별들을 밝기에 따라 크고 작은 점으로 그려놓고, 별자리 이름을 각 구역의 외곽에 표시하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

이 비석의 뒷면에도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전면과 똑같은 천문 체계를 따르고 있지만 일부 표기 형식이 더 세련되게 바뀌었다. 관련 기록을 통해 추정해보면 아마 세종 15년에 새로 새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석이 마모되자 숙종 13년(1687)에 상태가 좋은 탁본을 활용하여 이민철이 동일한 내용의 비석을 추가로 만들었다. 영조 46년(1770)에는 두 비석을 경복궁 흠경각에 보관했다가 1908년 대한제국의 제실박물관으로 옮겨졌다가, 이후 창경궁 명정전에 70년대 초까지 보관되어 왔고 지금은 국립고궁박물관에 비석을 보관 및 전시하고 있다.

유교에서 북극성은 왕을 상징했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들이 그려진 것은 유교의 통치 철학을 나타낸 것이다. 즉, 천문도 비석은 조선왕조 건국이념이 왕도정치의 구현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정치적 상징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비석의 내용을 필사하거나, 목판에 새긴 후 인쇄본이나 탁본을 제작하여 집권층이나 사대부들에게 배포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천문도가 걸린 사랑방은 왕조의 건국이념과 정체성을 홍보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 ① 숙종 때 ‘천상열차분야지도각석’의 탁본을 떠서 이민철이 새로운 비석을 만들었다.
- ② ‘천상열차분야지도각석’이 대한제국 제실박물관에 있었던 기간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있었던 기간보다 길다.
- ③ ‘천상열차분야지도각석’ 뒷면의 지도 역시 28수 체계를 그대로 따랐다.
- ④ ‘천상열차분야지도각석’ 한 ‘분야’에 들어가는 별자리의 개수는 평균적으로 2.5개 정도일 것이다.
- ⑤ 1908년 이전에 ‘천상열차분야지도각석’의 내용을 필사하려 했다면 흠경각에 가야 했을 것이다.

문 23.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세키가하라 전투는 일본사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전투들 중 하나로, 미즈나리의 서군과 이에야스의 동군 간에 벌어졌기에 동서합전(東西合戰)이라고도 칭한다. 이는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사(病死)하여 정유재란이 종전한 후 2년 만에 일어난 내전이였다. 전투 결과 이에야스가 승리하여 도요토미 정권이 몰락하고 에도 막부가 수립되었다. 이 전투는 현재 도요토미 가문과 이에야스의 도쿠가와 가문 간의 대결로 인식되지만, 전투 당시 이에야스의 도쿠가와 가문과 미즈나리는 둘 다 도요토미 가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거병했다.

전쟁이 시작되자 동군은 나카센도(中山道)를 통해 서군의 본거지인 오사카 성이 있는 서쪽으로 진군했다. 이에 미즈나리 역시 서군을 이끌고 동쪽으로 진군해 양군은 세키가하라에서 마주치게 된다. 그러나 바로 전투가 시작된 것은 아니고 양군은 각 부대 별로 진영을 세웠다.

동군은 이에야스의 본대를 중심으로, 전방에는 동군에 참여한 도요토미 가문 가신들의 부대들이 있었고, 후방에는 도쿠가와 가문의 가신들의 부대가 배치되었다. 반면 서군은 동군의 서쪽에 실질적 총대장 미즈나리, 임진왜란의 선봉장이었던 유키나가, 히데요시의 양자인 히데이에, 미즈나리의 친우 요시즈구의 부대를 남북으로 일렬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요시즈구의 부대 남쪽에 있던 마즈오 산(松尾山)에는 히데요시의 정실 부인의 조카로 또다른 히데요시의 양자인 히데야키의 대군이 주둔하였다. 또한 서군의 명목상 총대장이었던 테루모토의 모리 가문 부대 역시 이에야스의 본대 동남쪽에 있는 난구 산(南宮山)에 주둔하여 동군은 꼼짝없이 포위된 것처럼 보였다. 개화기 일본에 사관학교 장교로 온 프로이센의 소령이 포진도를 보자마자 서군의 승리를 예상할 정도였다.

세키가하라 전투는 일본사의 큰 흐름을 결정한 전투였지만 실제 진행된 시간은 단 3시간에 불과했다. 서군은 부대 배치와 병력만 우위였지, 내부적인 결속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를 간파한 이에야스는 난구 산의 부대에서 지휘부 중 일부를 포섭하여 전투에 참여하지 않게 만들었다. 또한 마즈오 산의 부대 전체를 회유하여 총부리를 서군 부대들로 돌리게 만들어 내전에서 승리했다. 이러한 실제 전투 결과를 듣고 프로이센 소령은 “그것은 전술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대답하였다.

- ① 세키가하라 전투는 1500년대에 벌어졌다.
- ② 세키가하라 전투는 두 부대가 마주친 지 반나절이 안 되어 종료되었다.
- ③ 난구 산에서 정서(正西) 방향으로 나아가면 마즈오 산이 나온다.
- ④ 지휘관 중 히데요시의 인척이지만 동군으로 전향하여 서군을 배신한 사람이 있다.
- ⑤ 프로이센 소령이 외교적 역학관계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정확한 전투 결과를 예측했을 것이다.

문 24.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아낭케’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나 필연성 등을 상징하는 여신이다. 신화적 상상력으로 세계의 현상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던 시기에 아낭케는 ‘운명으로서의 필연’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그러나 철학적 사유가 생겨나면서 아낭케는 일종의 이론적인 개념이 되었고 관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아낭케는 세계의 현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인 기계론적 관점과 목적론적 관점에 따라 상당히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기계론적 관점은, 세계에는 어떤 궁극의 목적이란 존재하지 않고 오직 기계적인 법칙만이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세계는 정교한 기계이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질량, 속도 등의 역학적 개념들만으로 세계의 현상들을 설명해야 한다. 이와 달리 목적론적 관점은, 세계에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존재되어 있고 세계는 이것을 향해 운동하고 있다고 본다.

기계론적 관점에서 아낭케는 ‘법칙성이라는 의미의 필연’을 뜻한다. 데모크리토스의 이론은 이런 기계론적 관점의 아낭케를 잘 보여 준다. 이성의 작용도 일종의 원자운동이라고 본 데모크리토스는 모양, 위치, 배열이라는 특징을 지니는 원자들이 특정하게 부딪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정해진 결과들이 나온다는 역학적 인과관계의 법칙만을 인정한다. 이런 법칙성이 바로 기계론적 관점에서 말하는 아낭케이다.

목적론적 관점에서 아낭케는 질료적 조건을 의미한다. 여기서 ‘질료(質料)’는, 이상적인 목적인 ‘형상(形相)’이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해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조건이다. 목적론적 관점을 지닌 플라톤은, 현실에 구현되기 이전의 형상은 그 자체로 완벽한데, 질료가 형상을 그대로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 오차나 무질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질료가 형상을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플라톤이 생각하는 아낭케는 극복해야 할 어떤 것이라는 의미도 지닌다.

- ① 목적론적 관점에 따르면 세계가 변화하는 것은 최종적인 목적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다.
- ② 데모크리토스는 모든 원자들의 현재 상태와 작동 원리를 알면 이성이 어떻게 작동할지도 알 수 있다고 생각했다.
- ③ 기계론적 관점에 따르면 세계가 변화한 것에 목적은 없고 오직 인과관계의 법칙성만이 존재한다.
- ④ 아낭케의 의미를 필연으로 여기는 관점에 의하면 세계에 궁극적 목적이란 없다.
- ⑤ 아낭케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관점에 의하면 아낭케가 없다면 형상이 현실에 구현될 수 없다.

문 25.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키가 일정 수치, 예를 들어 175cm 이상이어야 모델이 되는 시대는 지나갔다. 큰 키는 모델이 갖추면 좋은 조건이긴 하지만 필수조건은 아니다. 키가 작아도 신체 비율이 좋다는 등 신체의 다른 장점이 있으면 모델이 될 수 있다. 거꾸로 아무리 신체조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자신만의 감성이 더해져야 톱모델로 성공할 수 있으므로 오늘날 모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영화·음악·그림 등을 보면서 감수성을 길러야 한다.

모델로 오랫동안 활동하려면 자신의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도 필요하다. 수많은 스테프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이입을 해서 자신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현력이 높지 않으면 톱모델이 될 수 없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자존감도 높아야 한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는 톱모델을 할 수 없다.

모델은 기본적으로 옷을 입는 직업이지만, 패션 자체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그 옷이 활용될 분야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 모델은 찰나의 이미지를 파는 직업이다. 짧은 순간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한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패션쇼 무대를 걷는 동안 자신이 최고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그 화려함이 모델의 전부는 아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온종일 대기하기도 한다. 백스테이지의 열악함도 견뎌야 한다. 톱모델이 아니면 디자이너에게 선택되지도 않는 현실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

에이전시에 소속된 모델은 어느 정도 활동을 보장받는다. 에이전시에 소속된 모델은 잡지·광고·패션·방송 분야로의 진출이, 자신이 프로필을 만들어서 디자이너 혹은 캐스팅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야 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을 홍보해야 하는 프리랜서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에이전시를 선택할 때는 인지도 있는 다른 모델이 있는 곳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에이전시와 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같은지 살펴야 한다. 에이전시와 모델이 추구하는 바가 다른 경우, 모델업을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 ① 톱모델로 성공한 사람은 우월한 신체조건에 자신만의 감성이 더해진 사람이다.
- ② 표현력이 있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면 모델로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다.
- ③ 디자이너에게 선택된 모델은 표현력과 자존감이 높다.
- ④ 키가 작아도 패션과 옷의 활용에 관심이 많고, 감성과 표현력, 자존감이 있으면 톱모델이 될 수 있다.
- ⑤ 대형 에이전시에 소속된 모델은 그렇지 않은 모델에 비해 방송 분야로의 진출이 용이하다.

문 26. 다음 글의 ㉠과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흔히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점은 정의상 특정 좌표값만을 가지고 길이, 높이, 부피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점들을 모은다고 해서 선이 될 수 있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길이가 n인 유한한 선분을 생각해보자. 이를 더 이상 나뉘이지 않을 때까지 m등분한다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m은 무한값이 되며 나뉘어진 각 토막의 길이는 0으로 수렴할 것이다. 이때, 만일 m 등분한 토막 각각의 길이가 0이라면 그런 토막은 아무리 더해도 그 길이가 0일 뿐이다. 만일 m등분한 토막 각각의 길이가 0이 아니라, 0보다 큰 대단히 작은 양의 실수라면, 토막을 합치면 길이는 무한해 질 수밖에 없다. 이를 점과 선 사이의 관계에 적용하면, 점을 무수히 많이 찍는 것으로 특정 선분을 만들 수 없다. 이를 길이의 역설이라 한다. 길이의 역설은 선과 면의 관계에서도 성립하는 논리이다. 이에 대한 반론을 하기 위해 m 등분한 토막 각각의 길이가 '㉠'가 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 수를 엡실론이라 하자.

엡실론이 존재할 경우 엡실론을 m번 합하면 n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는 합하는 횟수인 m의 성질에 의해 결정된다. 무한값인 m이 0~n사이의 무한한 실수를 포괄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경우에만 엡실론에 m을 곱한 값이 0이 아니라 n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다. ㉡ 그렇기에 어떤 무한값 m과 0~n까지의 무한값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크고 엡실론이 존재한다면 점을 모았을 때 선이 될 여지가 있다.

- ① ㉠: 0보다는 크지만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은 수  
㉡: 무한값과 무한값 사이에도 크기를 비교할 수 있음은 이미 알려져 있다.
- ② ㉠: 0보다는 크지만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은 수  
㉡: 다른 모든 무한값보다 작은 무한값이 존재한다.
- ③ ㉠: 매우 작은 양의 실수 값  
㉡: 다른 모든 무한값보다 작은 무한값이 존재한다.
- ④ ㉠: 매우 작은 양의 실수 값  
㉡: 무한값과 무한값 사이에도 크기를 비교할 수 있음은 이미 알려져 있다.
- ⑤ ㉠: 0보다 작은 어떤 수  
㉡: 무한값과 무한값 사이에도 크기를 비교할 수 있음은 이미 알려져 있다.

문 27.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유성체란 태양계에 존재하는 바위에서 모래 정도 크기의 작은 물체들을 말한다. 1961년 개최된 국제천문연맹 총회에서 통과된 유성체의 정의는 “행성 사이의 우주 공간을 떠돌아다니는 소행성보다 작고, 원자나 분자보다는 훨씬 큰 천체”이다. 유성체는 대부분 혜성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이며, 일부는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도 있다. 혜성에서 떨어져 나온 유성체의 밀도는 0.3g/cm<sup>3</sup>이나, 소행성 떨어져 나온 유성체 밀도는 약 2g/cm<sup>3</sup>로 상대적으로 더 높다.

지구의 공전 및 유성체의 이동 과정에서 유성체가 지구 중력 범위에 들면, 유성체는 지구로 떨어진다. 보통 지면 약 100km 상공에서 빛을 내기 시작하며, 그 속도는 최대 72km/s에 이른다. 유성체의 크기는 소행성에 비해 대단히 작지만, 지구로 떨어지는 유성체의 운동에너지 자체는 대단히 크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유성체는 그 운동에너지로 인하여 대기 분자들과 충돌해 타들어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강렬한 빛을 발산한다. 이와 같이 빛을 내는 유성체를 우리는 유성이라 한다. 유성체의 크기가 클수록 빛은 더 밝아지고 빛이 지속되는 시간도 더 길어진다.

다수의 유성체가 한꺼번에 비처럼 떨어지는 경우 이를 유성우라 한다. 혜성에서 나온 유성체들은 통상 혜성의 공전 궤도를 따라 띠를 형성하게 된다. 이를 유성체 흐름이라 하는데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과정에서 이 유성체 흐름을 휩쓸고 지나가면 유성우가 일어난다. 한편 지구에서 유성우를 보면 한 지점에서 방사되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점을 복사점이라고 한다.

유성과 유성우는 종류와 관측자의 위치에 관계없이 새벽 1시부터 여명 전까지 가장 잘 보인다. 이는 지구 공전으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지구의 공전과 자전의 방향과 속도를 조합하였을 때, 지구에 있는 관측자는 새벽녘에 지구가 공전해 나아가는 방향에 위치하고 저녁에는 그 반대 방향에 위치한다. 따라서 저녁 하늘의 유성체들은 지구 공전 속도인 30km/s보다 빨리 지구를 쫓아와야 유성으로 떨어지지만, 새벽녘에는 지구가 지나가는 공간에 머물러 있기만 해도 지구와 충돌하여 유성이 된다. 즉, 한국이 저녁 시간대인 8시일 때 지구 반대편인 미국 LA에서 유성관측이 더욱 용이하다는 것이다.

유성체가 대기를 뚫고 지표면까지 낙하된 것을 운석이라 말한다. 현재까지 수천 개의 운석이 발견되었으며, 가장 많이 발견된 형태는 철 운석이다. 철은 유성체 구성에서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기를 통과한 이후를 기준으로서는 발견 빈도가 가장 많아진다.

- ① LA의 시간이 새벽 3시일 때 유성이 관측되었다면 그 유성은 지구의 공전궤도에 머물러 있던 유성체에 의한 현상이다.
- ② 하나의 유성체가 갈라져서 유성우가 되며, 이때 유성체가 방사되어 나오는 지점이 복사점이다.
- ③ 철로 이루어진 유성체가 가장 많은 까닭에 운석 중 철 운석이 다수 발견된다.
- ④ 저녁에 발견되는 유성의 운동 방향은 지구가 태양을 공전 방향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 ⑤ 소행성의 운동에너지는 유성체의 운동에너지보다 작다.

문 28.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서양의 근세 절대왕정 시기에는 중금주의(重金主義)를 근간으로 한 중상주의(重商主義)가 부(富)에 대한 국가의 이론적, 정책적 지침이었다. 중금주의란 한 나라의 부유함, 즉 국부(國富)가 국가가 보유한 전체 귀금속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여기서 국부를 늘리기 위해 귀금속 보유를 늘려야 하고, 귀금속 보유를 늘리기 위해 무역 흑자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나왔다. 그리고 이는 무역 흑자를 위해, 혹은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보호무역을 해야 한다는 중상주의를 탄생시켰다.

중상주의에 대한 대표적 반론으로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흄의 가격-정화-유동 메커니즘이 있다. 흄은 화폐수량설을 전제로 중상주의적 무역수지 개선 정책의 비일관성을 논증하였다. 당시 금본위제 하에서 무역 대금으로 이용되는 세계화폐는 금을 정량화하여 주조한 정화(specie)이다. 그리고 화폐수량설에 따르면 국내의 통화량, 즉 당시로 치면 국내에 유통되는 귀금속이 늘어날 경우 물가가 상승하는 1:1의 관계를 갖는다. 무역 적자국을 생각해보자. 무역 대금으로 지급한 정화는 그 나라 안에서 더 이상 유통되지 않으므로 물가는 하락할 것이다. 반대로 무역 흑자국의 경우는 지급받은 정화가 유입되어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제시장에서 흑자국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수출이 줄어들 것이고 무역수지는 균형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늘어났던 귀금속도 다시 해외로 유출되어 원상회복된다. 즉, 인위적인 보호무역을 통해 무역흑자를 달성한다고 쳐도, 결국 그러한 무역흑자는 금본위제 하에서 지속될 수 없어서 국부 증대라는 목적은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흄이 주장한 메커니즘에는 물가가 신속적으로 조정된다는 가정이 숨어있다. 정화가 유출되어 통화량이 감소되는 상황에서도 가격이 경직적일 경우, 무역수지 적자 국가는 계속하여 적자를 보고 자국 생산량 감소와 실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무역수지가 균형으로 돌아간다는 보장도 없게 된다. 세계경제에서 지속적 무역적자와 경기침체가 발생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논리의 연장에서 최근 일본은 자국 화폐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어 타국과의 무역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 했다.

- ① 국가의 부는 국가가 보유한 전체 귀금속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 ② 금은 가치가 변하지 않는 귀금속이기 때문에 세계화폐로 사용되었다.
- ③ 최근 일본은 흄보다 중상주의 입장에 가까운 경제정책을 채택했다.
- ④ 중상주의의 내재적 비일관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오늘날 국가들은 시장에 개입하는 보호무역 정책을 취하지 않는다.
- ⑤ 보호무역으로는 무역흑자가 지속될 수 없다.



문 29.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로 대(對) 웨이드 판결’(1973)은 낙태의 권리가 미국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에 포함된다고 본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이다. 당시 연방 대법관들은 찬성 7 대 반대 2로 낙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의 원고는 ‘제인 로’라는 가명을 사용했다. 텍사스 주의 주민이던 그녀는 21살에 임신했고 낙태수술을 받고자 했다. 하지만 텍사스 주의 낙태법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었다. 제인 로는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텍사스 주의 검사 헨리 웨이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 판결은 임신중절에 대한 3-3-3 원칙을 확립하였다. 먼저, 임신 1분기인 초기 3개월은 여성의 권리가 더 우선되며 여성의 독자적 판단으로 낙태가 가능하다. 2분기인 임신 4-6개월에는 산모의 건강이 위협해지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임신 3분기에는 태아가 인간의 형상과 통증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단계로 접어든다. 따라서 태아의 독자 생존성을 존중하여 낙태를 제한한다.

그 전까지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산모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했었고, 이로 인해 불법 낙태수술로 인한 사망 사건 발생 등 사회적 부작용도 많았다. 이 판결로 인해 낙태를 극히 일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던 주 차원의 법률들은 전부 폐지되었다. 미국 여성 권리 신장에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개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사생활의 권리에 포섭되어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법리는 동성애, 마약, 성매매, 안락사와 관련된 판결에서 여러 번 부정된 바 있고, 그 때문에 사생활 보호권을 근거로 한 법률적 근거가 역지로 급조된 것이라는 비판도 계속해서 제기되었다.

2022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둡스 대 잭슨여성보건의기구 판결’에서 기존 판례를 번복하여, 낙태권에 대한 연방 차원의 헌법적 보호를 폐지하였다. ‘둡스 대 잭슨여성보건의기구 판결’로 미국 전역에서 낙태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낙태 허용여부는 이제 각 주에서 주법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전체 50개 주 중 절반 이상인 26개 주에서 낙태를 제한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 ① ‘로 대 웨이드 판결’ 이전에도 낙태가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었다.
- ②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취지에 따라도 낙태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 ③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미국 대부분의 주에 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 ④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도출하는데 사용된 법리는 반박의 여지가 있었다.
- ⑤ ‘둡스 대 잭슨여성보건의기구 판결’은 여성의 낙태권이 사생활의 권리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문 30.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은?

스피노자는 외적 동기에 의해 생겨난 수동적인 인간 감정의 상태를 정념이라 표현했다. 그는 인간이 정념에 따라 행동할 경우, 인간 각자는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정념에 따라 행동하는 상태를 스피노자는 예속이라 정의한다.

예속적 삶은 미신적 삶이다.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특정한 사실에 잘못된 원인을 연결한 후 그것을 사실이라 믿는 것을 미신이라 한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미신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약한 지성과 강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 이때 지성은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이다.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서 앎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원인을 알 때 우리는 참다운 앎에 도달할 수 있다. 지성의 부족으로 미신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은 정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가령 어떤 사람이 벼락에 맞아 죽었다고 하자. 벼락의 원인인 기상현상을 지성이 파악하지 못할 때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 미신적 원인을 고안한다. 그 결과 ‘그는 나쁜 사람이었고, 벼락은 신이 그에게 내린 벌이라는 결과이다.’와 같은 미신을 만들어낸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미신으로 인하여 신의 도덕법은 징벌을 내리며 복종을 강요하는 공포스러운 것으로 변질된다. 그리고 어떤 타인이 이 미신적 명령에 위배되게 행동할 때 그는 ‘증오’의 대상이 되며, 내가 미신적 명령을 위반할 경우 나는 ‘죄의식’을 가지게 된다. 스피노자는 삶의 방식에 증오와 죄의식이 한자리를 차지하면서 ㉠예속적 법이 탄생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

㉠예속의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상상적 원인을 근절하고 적합한 원인을 인식하는 것, 즉 합리적 질서를 파악하는 것이다. 자연이 지닌 질서를 바르게 이해하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정서를 스피노자는 ‘신에 대한 사랑’이라 불렀다. 신이 지닌 질서를 이해하는 자는 신을 사랑할 수 있을 뿐 결코 복종할 수는 없다. 복종은 명령하는 자의 의지를 고려하는 일인데, ‘의지’를 지닌 신이란 상상의 소산일 뿐 인식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연 안의 질서를 이해하는 자는 그 인식의 필연성 때문에 자연의 일부인 자신의 삶을 긍정할 수 있을 뿐 그 질서를 거슬러서 예속 상태에 빠질 수 없다.

- ① 원인에 대한 인식 없이도 결과를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에 대한 스피노자의 견해는 약화된다.
- ② 스피노자에 따르면 ㉠은 지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③ 참다운 앎을 위해서는 원인뿐만 아니라 결과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은 ㉠에 대한 스피노자의 견해를 약화한다.
- ④ 스피노자는 ㉠을 위해서는 지성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 ⑤ 신이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통해 밝혀낼 수 있다면, ㉠에 대한 스피노자의 견해는 강화된다.

문 31. 다음 글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대장균은 하루에도 6~7세대가 나타날 만큼 번식이 빠르다. 대장균을 30년 동안 계속 배양한다면 이는 인류가 150만 년 동안 세대교체를 한 것과 같다. 그렇기에 돌연변이와 진화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대장균을 이용한 실험들이 다수 시행되었다. 과학자 A는 경쟁하는 다른 균주가 존재하지 않고 온도는 이상적으로 맞춰진 표준 배양환경에서 다음 1~3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일반적인 대장균은 포도당을 먹이로 삼고, 포도당 농도가 동일하면 증식에 걸리는 시간도 동일하다. 표준 배양환경에는 포도당 및 킬레이트 산 등이 균일한 농도로 공급된다.

실험 1 : 대장균을 100배가 되도록 배양한 후 모두 균질하게 혼합해 1%만 남기고 다시 배양을 반복했다. 100여일간 실험을 반복한 결과 균이 100배로 증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실험 2 : 실험 1을 진행하면서 매일 저녁 배양된 대장균 중 일부를 따로 모은 후 구별을 위한 색소처리를 하였다. 추출한 대장균들을 모두 섞은 후 균이 100배가 되도록 배양하면서 증식 경쟁을 진행한 결과 중간 세대에 해당하는 대장균만 증식했을 뿐 뒷세대나 최종 자손 세대에 해당하는 대장균은 거의 증식하지 못하였다.

실험 3 : 실험을 반복한 결과 킬레이트 산을 먹을 수 있는 돌연변이 대장균이 등장하여 다른 대장균과의 생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였다. 단 이 개체는 포도당에 대한 에너지 대사 효율은 떨어진다.

<보 기>

- ㄱ. 실험 1과 실험 2 및 실험 3의 연구결과는 모두 참일 수 있다.
- ㄴ. 대장균을 반복하여 증식하면 돌연변이 발생 횟수가 감소한다는 사실은 실험 2의 연구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 ㄷ. 실험 3의 돌연변이 대장균과의 증식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포도당 대사 효율을 높이는 돌연변이 대장균이 등장해야 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문 32.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오감도(烏瞰圖)는 1934년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조선중앙일보에 연재된 이상의 ‘난해시’(難解詩)다. 원래 30편을 계획했으나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독자들의 항의로 15편 만에 조기 중단되었다. 이 시는 ‘시 제1호’를 게재한 첫 날부터 파문을 일으켰고, 조선중앙일보는 “이런 시를 실을 거면 차라리 신문 자체를 폐간해버려라”는 항의전화와 편지가 쏟아졌는데도 15편까지는 끈끈하게 올렸다.

현재까지도 한국 난해시의 최고봉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부의 해석으로는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와 방향이 담겨있는 저항시라고 한다. 성적 자유주의를 지향하며 <즐거움 사라>를 저술한 마광수 교수는 이 시에 대해 남녀 간 성행위를 표현하고 있다 해석했다.

다음은 연작시 오감도의 첫 작품으로 가장 유명한 시 제1호이다.

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오. (㉠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제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오. 제2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 제3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4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5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6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7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 제8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9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10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1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오. 제12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13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 13인의 아해는 무서운 아해와 무서워하는 아해와 그렇게뿐이 모였소.(다른 사정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나았소) ㉤ 그중에 1인의 아해가 무서운 아해라도 좋소. 그중에 2인의 아해가 무서운 아해라도 좋소. 그중에 2인의 아해가 무서워하는 아해라도 좋소. ㉥ 그중에 1인의 아해가 무서워하는 아해라도 좋소. (㉦ 길은 뚫린 골목이라도 적당하오.) 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지 아니하여도 좋소.

- ※ 그리오: ‘그리오’, 즉, 그렇게 말했다는 의미
- ※ 아해: ‘아이들처럼 작게 보이는 사람들’을 의미

<보 기>

- ㄱ. ㉠에 동의하면 ㉡에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
- ㄴ. ㉢에 동의하는 사람은 ㉣과 ㉤에 모두 동의할 수 없다.
- ㄷ. ‘무섭다고 말하는 아해는 무서운 아해다.’라고 전체해도 ㉣로부터 ㉥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문 33. 다음 <조건>을 받아들일 때, <사례>에 대해 적절하게 평가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조 건>—

어떤 한 진술이 반드시 참이거나 반드시 거짓이 아닌 경우 그 진술은 의미가 있다. 두 진술 각각이 의미가 있으면서 동시에 참일 수 있을 때 두 진술은 서로 의미 있는 관계라 한다.

—<사 례>—

철수와 영희는 반 친구들과 함께 다음 주에 파티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주 목요일에 파티를 진행하는 것만 확정되었고 다른 요일의 파티 진행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음 주 일정과 관한 다음과 같은 진술들을 듣는다.

- A: 다음 주에 파티를 진행하지 않거나 다음 주 월요일에 파티를 진행한다.
- B: 다음 주에 파티는 세 번 이상 진행할 것이다.
- C: 다음 주에 파티는 두 번 이상 열릴 것이다.
- D: 다음 주에 파티가 열리는 횟수는 7일 이하이다.
- E: 다음 주 화요일에 파티가 열리면 다음 주 목요일에도 파티가 열린다.

—<보 기>—

- ㄱ. 의미 있는 진술의 개수는 3이다.
- ㄴ. 전제가 B이고 결론이 C인 추론과 달리 “D이면 A이다.”라는 진술은 의미가 있다.
- ㄷ. “C이고 E이다.”라는 진술과 “B가 아니다.”라는 진술은 서로 의미 있는 관계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문 34.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거짓인 것은?

A, B, C, D, E, F, G, H의 8명의 사람을 사랑, 우정, 정의 팀으로 나누어 배치하였다. 이와 관련해 알려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 A, B, C, D, E는 남자이며, F, G, H는 여자이다.
- H는 사랑 팀에 소속되어 있다.
- G는 남자와는 같은 팀에 속하지는 않는다.
- F가 속한 팀에는 그 외 다른 여자가 참여할 수 없다.
- E가 속한 팀에는 F가 속해 있다.
- B가 속한 팀에는 D도 속해 있으나 C는 속하지 않는다.
- 사랑 팀의 인원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우정 팀이며, 정의 팀의 인원이 가장 적다.

- ① 정의 팀에는 G가 소속되어 있다.
- ② 사랑 팀에는 A와 D가 소속되어 있다.
- ③ D가 소속된 팀에는 F도 소속되어 있다.
- ④ C가 소속된 팀에는 E도 소속되어 있다.
- ⑤ 우정 팀에는 3명의 팀원이 소속되어 있다.

문 35.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범인인 사람은?

호텔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관 갑은 A~E 중 범인과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이후 갑이 추가로 파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가 범인이면 B가 범인이 아니고, B가 범인이 아니면 C는 목격자이다.
- D가 목격자이면 C가 범인이고 A가 목격자면 E도 목격자이다.
- E가 범인이 아니면 C는 목격자이다.
- 목격자는 범인이 아니다.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문 36. 다음 대화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A: 갑이 X에 대해 의무감을 가진다는 말은 “X를 위해 본인의 쾌락 향유를 삼간다.”라는 쾌락 통제를 의미합니다. 즉 의무감이라는 감정은 쾌락을 활용해 규정할 수 있고 이를 ‘의무감의 쾌락 통제 원리’라 합니다.

B: 그렇다면 의무감을 가진 사람은 모두 쾌락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A: 그럼요. X에 대해 의무감을 가진 사람은 X를 위해 본인의 쾌락 향유는 후 순위로 두지요.

B: X에 대한 의무감에서 나온 행동이 스스로에게 쾌락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에도 ‘쾌락 향유를 삼간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A: 그런 경우라도 X에 대해 의무감이 있다면 X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다른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쾌락 향유를 포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B: 의무감에 따른 행위에서만 쾌락을 느끼고 그 외 행위에 대해서는 쾌락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어떤가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요?

A: 물론이죠.

B: 그런 사람도 X에 대해 의무감을 느낀다고 해야 할까요?

A: 글썽요. 그랬다간 의무감의 의미가 희석될 수 있겠죠. 여타 쾌락 향유에 대한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을 의무감이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의무감을 가진 사람은 본인의 행동에 대한 내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B: 그러나 특정 행동과 관련된 쾌락 향유에 제한이 있더라도 의무감이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의무감의 쾌락 통제 원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A: 선생님은 지금 제 주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는 ㉠라고 주장한 것일 뿐입니다. 행동에 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중 의무감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 기>

- ㉠. “X에 대한 의무감을 가진 사람은 행동에 대한 제약을 가지고 있다.”라는 진술은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 ㉡. B의 견해에 따르면, 의무감을 가지면서도 쾌락 향유를 삼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
- ㉢. 만약 B가 마지막 진술을 반복하여 ‘X에 대한 행동 Y가 갑에게 쾌락이 된다면 갑은 X에 대해 행동 Y라는 의무감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한다면, 갑이 X에 대해 의무감을 가진다는 정보를 통해 그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행동에서 쾌락을 느낀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문 37. 다음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A: 형제여! 지금 옆 마을의 공주가 괴물에게 납치되었다고 하네. 옆 마을의 영주님께서 공주를 구원해주는 용사를 본인의 사위로 삼고 영지의 후계자로 삼겠다고 공표했어. 뛰어난 용사라고 하면 자네와 나를 빼놓을 수 없지! 같이 공주를 구원하러 가세!
- B: 그 소식은 나도 들었어. 그러나 형제여, 나는 이번에 공주를 구하러 가지 않겠다고 결정했네.
- A: 그게 무슨 소리인가? 자네와 같은 용사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무기력한 소리나 하다니! 실망이군!
- B: 공주를 구원하는 데 성공한다 해도 결국 공주와 결혼할 자는 한 명밖에 없어. 그리고 자네는 공주와 결혼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네. 그러나 나는 공주와 결혼을 해봐야 행복하지 않을 것 같네. 나는 권력욕도 없는데다가 공주가 비록 아름답긴 하지만 나의 이상형에는 부합하지 않더군. 난 자네가 행복해하길 원하네. 만약 내가 공주를 구하러 가지 않는다면 자네가 공주를 구원하는 데 성공하여 공주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될 테지. 따라서 내 입장에서는 공주를 구하러 가지 않는 것이 합당해.
- A: 자네가 공주를 구하는 모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나의 행복의 원인이 될 수 있겠는가? 자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일토당토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인가? 내가 공주와의 결혼에 행복해한다면 그것은 내가 모험에 성공하여 정당한 대가를 성취했기 때문이네. 자네가 모험을 하지 않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
- B: 형제여, 그렇지가 않다네. 일단 내가 모험을 시작하게 된다면 나도 공주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일세. 자네와 나는 비슷한 실력을 가졌기에 둘 중 누가 공주를 구하게 될지는 모르는 일인 것이지. 이 경우 자네가 공주와 결혼할 확률이 혼자 모험을 할 때보다 낮아지게 되는 셈이네.

—<보 기>—

- ㄱ. 원하는 것을 달성하는 수단이 모두 합당한 것은 아니라면, B의 논증은 약화된다.
- ㄴ. B가 모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A의 행복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A의 주장이 참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다른 것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가정이 참이어야 한다.
- ㄷ. B의 논증에 따르면, A가 B에 비해 실력이 더 좋다면 B가 모험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문 38. 다음 글의 ㉠과 ㉡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신의 뜻에 따라 우주가 운행된다고 믿는 ㉠ 결정론적 세계관 속에 살았기에 자연재해나 천체 현상 등을 신의 뜻이라 보고 두려워했다. 에피쿠로스는 당대의 사람들의 이러한 믿음을 잘못되었다고 보았다.

에피쿠로스는 신의 존재는 인정하나 신의 존재 방식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고, 신은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신론적 관점을 주장했다. 그는 불사의 존재인 신은 최고로 행복한 상태이며, 다른 어떤 것에도 고통을 주지 않고, 모든 고통은 물론 분노와 호의 같은 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한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세계가 신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인간의 행복도 자율적 존재인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보았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영혼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다고 본다. 영혼은 육체와 함께 생겨나 육체와 상호작용하며 육체가 상처를 입으면 영혼도 고통을 받는다. 더 나아가 육체가 소멸하면 영혼도 함께 소멸하기에 인간은 사후 신의 심판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인간은 사후에 있을 신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

에피쿠로스의 주장은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 비결정론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원자의 운동에 관한 에피쿠로스의 설명에서도 드러난다. 원자들이 수직 낙하 운동이라는 법칙에서 벗어나 비스듬히 떨어지거나 다른 원자와 충돌하여 튕겨나가는 우연적인 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주는 이러한 원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우주의 움직임도 필연이 아닌 우연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신의 관여는 없으며, 인간의 삶에서도 신의 섭리는 찾을 수 없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다.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 인간이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려 했다.

—<보 기>—

- ㄱ. 어떤 원자가 특정 상황에서 수직 낙하 운동의 법칙에 따라 운동했다는 것이 관찰될 경우, ㉡은 약화된다.
- ㄴ. 육체가 소멸했음에도, 영혼은 남아 사후에 신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은 강화되고, ㉡은 약화된다.
- ㄷ. 신이 최고로 행복한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도 때로는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우주의 운동을 결정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은 약화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ㄴ, ㄷ
- ④ ㄱ, ㄷ
- ⑤ ㄱ, ㄴ, ㄷ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 39. ~ 문 40.]

동로마 제국은 고대 로마 후기 시작된 전제 군주정 체제를 채택했으나 시민 문화적으로 공화정의 자유 시민 전통 역시 남아 있었다. 제국 초기 청색당과 녹색당은 그 전통을 잇는 존재였다. 두 당파는 그리스 시대부터 유행한 전차 경기의 응원단에서 기원했다. 전차 경기장에서 각 전차는 자신의 소속을 녹색과 청색 등으로 나타냈는데, 그 응원 과정에서 녹색당과 청색당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두 당파는 단순한 응원단이 아니었다. 동로마 제국의 전차 경기장이었던 히포드롬(Hippodrome)은 아테네의 아고라(agora)나 고대 로마 공화정의 포룸(forum)처럼 민중이 자유 시민 전통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내세울 수 있는 장소였다. 이 장소를 장악한 두 당파는 현대 정당의 시초로 여겨진다. 황제를 포함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정치인과 관료들 대다수가 양당 중 하나에 속하여 활동을 할 정도였다. 일반적으로, 양당 중 한 쪽이 정부의 비호를 받고 정부의 비호를 받지 못한 쪽은 반정부적인 기류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두 당은 자유 시민의 전통을 이어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권력의 전제적 지배가 나타날 때는 양당이 협력하기도 했다.

527년 단독 황제로 즉위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숙부이자 선제인 유스티누스 1세와 공동통치를 맡았을 때만 해도 선선대 황제가 지지하던 청색당을 비호했고, 청색당은 그런 황제에게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제위에 오르게 된 유스티니아누스는 유혈 충돌 등을 일으켰다는 명목으로 녹색당과 청색당 모두를 강하게 탄압했다. 또한 유스티니아누스는 제국 서방 지역으로 국경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이는 시민들에게 군역이나 노역 등을 과도하게 요구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양당은 서로 연대하여 황제의 절대 권력에 대항할 것을 결의했다.

532년 1월, 양당의 지지자들은 콘스탄티노플의 히포드롬에 집결하여 황제에 맞섰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위와 성토로 시작하다 이내 내전으로 변해, 시위대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 곳곳을 불태우기까지 하였다. 황제의 전제적 통치에 반발한 유력 원로원 의원들까지 양당을 후원하자, 자신감을 얻은 녹색당과 청색당은 원로원으로 지도부를 옮기고 거기에서 유스티니아누스의 폐위와 선선대 아나스타시우스 1세의 조카 히파티우스의 즉위를 선포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내전 초기 양당 기세에 놀려 수도에서 도망치려고 했다. 그러나 황후 테오도라의 강력한 주장을 수용해 수도에서 반란을 진압할 것을 결의했다. 이후 유스티니아누스가 반란을 진압하는 것에는 명장 벨리사리우스와 환관 나르세스의 역할이 컸다.

나르세스는 반란 진압을 위해서는 반란 세력의 연대를 해체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청색당의 지도부와 접촉하여 선대 유스티누스 1세와 유스티니아누스의 공동 통치기에 청색당에 베풀어진 은혜를 상기시키며 새 황제로 선포된 히파티우스는 녹색당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청색당에 대한 지금 지원까지 약속한 결과, 강력하게 연대하던 양당은 내부적으로 분열하게 된다.

그 후 벨리사리우스는 황제와 병력들을 지휘하여 반란 지도부를 습격했다.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습까지 당한 봉기자들은 공격을 감당하지 못했고, 3만 명이 넘게 학살당하면서 반란이 진압된다. 이를 ‘니카의 반란’이라 한다. ‘니카의 반란’ 진압은 유스티니아누스가 자유시민의 전통을 확실히 꺾고, 절대적인 황제권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 사건으로 평가되었다. ㉠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도 로마 제국의 공화적, 시민적 전통은 동로마 제국에 계속 이어졌다. 최근에는 ‘니카의 반란’ 이후 중기, 후기 동로마 제국의 공화적 전통에 주목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문 39.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 ① 유스티니아누스 이후 동로마 제국에서는 황제권을 위협할 당파는 나타나지 않았다.
- ② 청색당은 군주정 체제를, 녹색당은 공화정 체제를 각각 지지했다.
- ③ 유스티니아누스는 과거 로마 제국의 수도를 다시 수복하고자 하였다.
- ④ 아나스타시우스 1세는 히파티우스의 삼촌으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와 달리 녹색당을 지지하였다.
- ⑤ 벨리사리우스는 원로원으로 진격하여 반란을 진압했다.

문 40. 위 글의 ㉠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 ‘니카의 반란’으로 히파티우스는 처형당했고 녹색당 소속 상당 인원은 정계에서 퇴출되었다 하더라도 ㉠은 약화되지 않는다.

㉡. ‘니카의 반란’ 직후 황제의 지휘를 받는 관료들이 녹색당과 청색당 양당을 장악해 강력하게 통제하였다면 ㉠은 약화된다.

㉢. ‘니카의 반란’ 이후 동로마 제국은 히포드롬을 폐쇄하지 않고 로마의 포룸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되, 당파 활동은 금지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은 강화된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